

국별리포트

홍콩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1.

| | |
|--------------------|---|
| I. 일반개황 | 1 |
| II. 경제동향 | 1 |
| III. 정치·사회동향 | 7 |
| IV. 국제신인도 | 9 |
| V. 종합의견 | 9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홍 공

I. 일반개황

| | | | |
|---------|---------------------------------|-----------|-------------|
| 면 적 | 1천 km ² (서울의 약 1.8배) | 통 화 단 위 | 홍콩 달러(HK\$) |
| 인 구 | 7백만명(2008) | 환 율 (달러당) | 7.80(2008) |
| G D P | 2,154억 달러(2008) | 정 치 체 제 | 중국의 특별행정구 |
| 1인당 GDP | 30,200 달러(2008) | 대 외 정 책 | 독자적 외교권 없음 |

- 홍콩의 주권이 1997년 7월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후, 중국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하며 홍콩을 중국의 '특별행정구(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로 지정하고 50년간 고도의 자치를 보장
- 홍콩정부는 미니헌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체계하에서 입법권, 사법권 등을 행사. 다만, 외교, 군사권은 중국이 보유
- 홍콩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펼쳐 오고 있으며, 외국자본 유입과 외국 기업의 진출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우수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아시아 물류거점기지의 역할을 수행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급격 둔화
 - 중국경제의 활황 등으로 2005년 이후 연 6%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 하였으나,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에 따라 성장 동력인 수출의 감소로 실질 GDP 성장률은 2007년 6.4%에서 2008년 2.6%로 하락
 - 2009년 홍콩경제는 ① 경기침체로 인한 전세계 물동량 감소, ② 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 침체, ③ 관광객 감소, ④ 소득감소 및 소비 둔화 등으로 -3.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다만, 중국 경제의 회복*, 홍콩 정부의 부양정책 등으로 2009년 1분기 이후 회복추세**

* 중국경제는 '09. 1분기 6.1% → '09. 2분기 7.9% → '09. 3분기 8.6%의 성장을 기록

** 홍콩경제는 '08. 4분기 1.5% → '09. 1분기 -7.8% → '09. 2분기 -3.8%의 성장을 기록

- 홍콩정부는 경제회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확충,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 실시

□ 경기침체에 따른 확대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 2005~2007년에는 정부지출의 축소 및 경제성장, 부동산경기 활황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
- 그러나, 2008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관련 세수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2009년에도 재정수지는 GDP대비 -1.9%의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둔화추세 지속

- 2007년까지 2.0% 안팎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 약세와 대 중국 수입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3%에 이룸. 2009년 물가상승율은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0.3% 기록 전망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f |
|-------------|--------|--------|--------|--------|--------|
| GDP (억 달러) | 1,778 | 1,900 | 2,072 | 2,154 | 2,130 |
| 1인당 GDP(달러) | 25,770 | 27,380 | 29,680 | 30,680 | 30,200 |
| 경제성장률 (%) | 7.1 | 7.0 | 6.4 | 2.4 | -3.2 |
| 재정수지/GDP(%) | 1.0 | 4.0 | 7.7 | -0.3 | -1.9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 2.0 | 2.0 | 4.3 | -0.3 |

자료: IFS,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외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전체 교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48.5%, 수입이 46.6%(2008년 기준)로 중국 경제에 의존도가 높음. 또한, 홍콩 경제에서 금융, 무역, 물류 등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
- 특히,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 페그되어 있어 미국 달러화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음
 -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달러화 페그제가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2007년과 같이 달러화 약세의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물가 상승, 환율방어를 위한 재정부담 확대 등의 문제 발생
 - 홍콩정부는 달러화 페그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위안화와의 연동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피력

□ 중국 경제 및 경제정책에 의존 심화

- 홍콩 경제는 2003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등으로 중국 경제와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독립적인 정책 수립, 시행에 제약
- 특히, 중국정부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홍콩 지원을 위해 2008년 하반기 중국 인프라 투자에 홍콩기업의 참여 확대 등 14개에 이르는 지원책을 발표하였으며, 2009년 1월에는 2,000억 위안(약 294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

□ 아시아 국가들 간 물류경쟁 심화로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약화 가능성

-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콩을 거쳐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는 방식의 중계무역이 발달. 총 수출 중 재수출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

- 환적 화물의 경우 화물처리 비용이 낮은 다른 항만들(타이완 까우슁항 등)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중국도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수출에서 직수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특히, '08년 대만의 마잉주 총통 당선 이후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과거 홍콩을 경유하던 대만 수출물량의 직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홍콩의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약화 가능

[성장 잠재력]

□ 금융과 물류의 아시아 허브 역할

- 홍콩은 금융과 물류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수행.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물류 및 금융 부분에서 홍콩을 추격하고 있으나, 영어 사용의 용이성, 발달한 인프라 등으로 향후 홍콩의 물류·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중국과 인접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교두보 역할 수행

- 법 집행과 행정체계의 투명성, 간소한 법인설립 절차(등록이 아닌 신고제), 자본 조달과 중국관련 정보수집의 용이성 등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점 역할

□ 최적의 외국인 투자환경 구축

-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동등대우의 투자정책을 고수하여 출자비용, 현지인 고용, 이윤송금, 재투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낮은 세율, 투명한 기업경영 환경 등의 이점이 있음.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 영국식 제도와 영어가 통용되는 것도 큰 장점
- 2009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실시한 각국의 투자환경평가에서 홍콩은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

[정책성과]

□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경제성장 촉진

- 2003년 6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CEPA)을 체결한 이후 홍콩산 제품 관세 철폐와 관광,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중국 진출 활발
 - 자유무역협정(CEPA) 체결 후 본토 중국인의 홍콩 여행 자유화가 실시되어 중국인이 홍콩 여행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홍콩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또한, 홍콩은 중국의 남부 9개 성과 마카오를 있는 범주강삼각주(Pan-PRD) 경제협력조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홍콩-중국 주하이(珠海)-마카오'를 잇는 교량을 건설할 예정으로, 인구 4억 7천만 명의 화남 경제권이 형성될 경우 홍콩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무역결제에 위안화 사용,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등으로 위안화 국제화 전초기지 역할 및 위안화 관련 주요 역외금융센터로 성장 가능

- 중국정부가 2008년 12월 홍콩과의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2009년 7월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국과 홍콩 교역액의 50% 정도가 위안화로 결제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10월 중국은 국외에서는 처음으로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하였으며*, 2009년 5월에는 중국 최초로 외자 상업은행(HSBC 및 동아은행)에 대해 홍콩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허가하는 등 홍콩을 위안화 관련 주요 역외금융센터로 육성하려는 의지 표명

* 발행금액은 60억 위안(8.8억 달러), 기간(금리)은 2년(2.25%), 3년(2.7%), 5년(3.3%) 만기

□ 환경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환경연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공해물질 배출을 2010년까지 1997년 수준의 20~55%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정부차원의 거시적 환경정책 실시

3. 대외거래

□ 서비스 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국 본토의 금융, 법률, 물류 등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와 활발한 해외투자에 따른 소득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적자를 상쇄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f |
|----------|---------|---------|---------|---------|---------|
| 경 상 수 지 | 20,181 | 22,928 | 25,532 | 30,523 | 28,300 |
| 경상수지/GDP | 11.4 | 12.1 | 12.4 | 14.2 | 13.3 |
| 상 품 수 지 | -7,627 | -14,033 | -19,701 | -23,117 | -28,300 |
| 수 출 | 289,579 | 317,600 | 345,979 | 365,236 | 326,900 |
| 수 입 | 297,206 | 331,634 | 365,679 | 388,353 | 345,700 |

자료: IFS, EIU

□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보유액은 지속 증가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하여 2008년 말 외환보유고는 1,825.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2,060.8억 달러에 이를 전망

<표 3>

주요 외채관련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f |
|-------------|---------|---------|---------|---------|---------|
| 외 환 보 유 액 | 124,278 | 133,210 | 152,693 | 182,527 | 206,080 |
| 외환보유액/수입개월 | 3.8 | 3.6 | 3.6 | 4.0 | 5.1 |
| 총 외 채 잔 액 | 72,900 | 73,000 | 75,300 | 77,100 | 66,800 |
| 총외채잔액/GDP | 41.0 | 38.5 | 36.4 | 35.8 | 31.4 |
| D . S . R . | 2.2 | 2.3 | 2.0 | 1.8 | 1.8 |

자료: IFS, EIU

□ 외채를 크게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으로 채무불이행 위험 낮음

- 2008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는 771억 달러 수준인데 반해 외환보유고는 1,825.3억 달러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D.S.R.도 1.8%대의

양호한 수준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 홍콩은 완전한 주권국가가 아닌 중국의 특별행정구(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로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단(800명)과 입법의회(60석) 중 절반이상이 친중국 성향의 인물로 구성되어 중국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 불가
- 홍콩은 독자적으로 입법권, 사법권 등을 행사하고 있으나, 외교, 군사권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관계도 중국의 대외정책을 옹호하는 정도의 소극적 수준

□ 도널드 창 행정장관 지지기반 확고

- 2005년 3월 건강을 이유로 중도 사퇴한 등젠화 전 행정장관 후임으로 도널드 창 행정장관이 남은 2년의 임기를 물려 받은 후, 2007년 3월 향후 5년을 이끌 행정장관에 당선
- 도널드 창 행정장관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지지도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지지와 대중적 인기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

□ 최근 입법의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과반의석 차지,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

- 2008년 9월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당 등 범민주파가 1/3인 23석의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친중파가 6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중국의 주도권을 확보

□ 직선제 등 정치개혁안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개혁일정 제시로 혼란가능성 낮음

- 홍콩정부는 2012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해 홍콩의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중국정부의 반대로 무산
- 다만 중국정부는 행정장관 직선제는 2017년, 입법의원 직선제는 2020년 이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경제부분에서는 서방국가와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

- 꾸준한 금융시장 개방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 서방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음
- 다만, 중국과 타국과의 관계 악화시 중국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홍콩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시위문화

- 시위의 대부분이 소규모의 평화적 성격의 시위로 매년 6월 천안문 사태, 7월 홍콩 특별행정구 설립을 기념하는 촛불시위 정도에 그쳐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님

□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 직선제 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실현 요구 지속

- 홍콩 민주화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 직선제이므로 향후 중국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 있음
- 중국 정부의 직선제 관련 방안은 시기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와 관련 급속한 소요 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음

□ 빈부격차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빈부격차 문제가 이슈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게다가,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2008년 1월 3.1% → 2008년 12월 3.9% → 2009년 8월 5.8%)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Moody's: Aa2 (2008. 12.)
- S&P: AA+ (2009. 8.)
- Fitch: AA (2008. 1.)
- Euromoney: 21/186 (2008. 9.) → 22/186 (2009. 9.)
- OECD: 2등급 (2006. 4.) → 1등급 (2007. 3.) → 1등급 (2009. 4.)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 유지

- 대 홍콩 수출: 18,979백만 달러(2007) → 18,654백만 달러(2008)
- 대 홍콩 수입: 2,101백만 달러(2007) → 2,142백만 달러(2008)

□ 홍콩은 누계기준 우리나라 제 3위의 투자대상국

- 대 홍콩 투자 : 1,198건, 8,186백만 달러(2009년 6월말 누계, 현지법인 기준)

V. 종합 의견

- 홍콩 경제는 중국경기 호조, 내수소비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루어 왔으며,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추세 지속, 물가안정,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

-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외부의존도가 높은 홍콩의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경기의 회복 및 홍콩 정부의 내수부양책 등으로 2009년 1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홍콩정부가 마련한 행정장관 및 입법의원 직선제 개혁안이 중국 정부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2007년 3월 행정장관으로 당선된 도널드창 행정 장관이 중국정부와 홍콩 시민의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2008년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과반을 차지하여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

-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경제 및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고,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확고하여 향후 중국경제와 세계경제가 회복될 경우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박세근 (☎02-3779-6673)

E-mail : skparkse@koreaexim.go.kr